

民主主義思想에 대한 清末知識人の 理解

全 海 宗

I

中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에 관한 문제는 그 時期를 清末로 制限한다고 하여도 매우 廣汎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民主主義 思想이 어떤 經路로 어떤 人物들에 의하여 導入되고, 民主主義 思想은 中國人の 傳統的 思考 또는 思想에 비추어 어떻게 評價할 수 있는가, 民主主義 運動은 또한 어떤 人物들에 의하여 어떻게 推進되고, 이에 대한 淸의 官邊과 一般 中國人の 反應은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歷史的인 觀點에서 이들 여러 側面은 어떻게 評價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매우 複雜하고 多樣하기 때문에 도저히 간단히 論하기는 어렵다. 本稿는 그 多樣的한 문제 중에서 清末 知識人の 民主主義에 대한 理解라는 점을 중심으로 清末에 있어서의 民主主義 導入 내지는 受容의 문제의 一側面을 살펴 보려고 하는 것이다. 비록 위와 같이 本稿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나, 民主主義思想이 어떤 人物들에 의하여 어떻게 中國에 導入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간단히 言及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導入에 있어서 後에는 中國人이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게 되나 처음에는 民主主義思想의 本據인 歐美 등 西洋人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西洋人들 중에서는 宣教師를 비롯하여 外交官・言論人・學者 또는 商人도 있다. 그들 중에서 가장 顯著한 人物을 例로 들면, William A.P. Martin(1827~1916, 中國名 丁韞良)은 美國人 宣教師로서 1850년부터 中國에 와서 宣敎에 종사하다가 69년에는 京師同文館의 總敎習이 되고 98

년에는 北京大學의 前身인 京師大學堂의 西洋語文의 總敎習이 되고 또한 후에는 淸政府의 法律顧問이 된 사람으로서, 그는 同文館에 關係하기 전에 이미 〈萬國公法〉을 翻譯하였으며, 이 책은 우리나라에도 傳하여졌다. 그밖에 Martin은 〈富國策〉·〈公法會通〉5冊 등을 著述하였는데, 이들은 民主主義思想과 관련된 것임이 틀림없다. 또 京師同文館에서 刊行한 책으로 〈法國律例〉·〈星軺指掌〉(Charles de Martens, *Le Guide diplomatique*의 譯書, 韓國에도 傳來)·〈公法便覽〉과 그밖에 유럽 各國의 歷史書가 있으며, Martin이 직접 번역하거나 著述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同文館의 總敎習으로 있는 그와 관련이 깊으며 또 그 內容은 당연히 西洋의 民主主義思想과 관련된 것이다.

中國人の 경우를 보면, 留學生이나 外交官도 後期에는 民主主義思想의 導入과 관련이 있으나, 初期에는 주로 京師同文館이나 上海方言館, 江南製造局의 翻譯館 그밖에 洋務運動과 관련된 機關에서 訓練을 받은 사람들이 外國人 敎師의 敎育을 받고 또 上記한 機關에서 翻譯하거나 著述한 書籍을 통하여 民主主義思想을 受容하였다. 하나의 例를 들면, 嚴復(1853~1921)은 福州船廠 附設의 學堂을 졸업한 후에 英國에 留學하여 유럽의 政治制度와 思想에 接하고 歸國後에는 北洋水師學堂의 總敎習과 總辦(校長)을 지내고 다시 京師大學堂의 編譯局 總辦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는 立憲制를 主張하는 많은 論述과 또 譯書를 냈으며, 〈天演論〉(Th. Huxley, *Evolution and Ethics*의 一部)·〈群學肄言〉(H. Spencer, *The Study of Sociology*)·〈原富〉(A. Smith, *Wealth of Nations*)·〈法意〉(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群己權界論〉(J.S. Mill, *On Liberty*) 등이 있다. 그의 民主主義思想은 改良主義의이었으며, 淸末의 過渡의 議政機關인 資政院의 議員이 되기도 하였는데 民國成立 후에는 오히려 保守 反動的의 되었다.

II

民主主義 社會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個人이 社會生活에 自由・平等하게 參與할 資格이 있다는 것이 認定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社會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個人的으로나 團體的으로 그들의 生活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決定에 自由롭게 參與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個人的 團體的으로 그들의 生活에 관련되는 政治的 決定에 있어서 市民으로서 自由롭게 參與하는 機會가 賦與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廣義 또는 狹義의 民主主義의 理念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서 清末 知識人の 民主主義思想에 대한 理解를 고찰하여 보려고 한다.

첫째로 前近代의 專制主義에 대한 批判이 많다. 그러한 例를 들면, 앞에서 말한 嚴復은

秦나라 以來로 中國의 君主는 다 매우 強硬하고 百姓을 가장 잘 속이는 者들이다 (原文의 大意——以下同. <關韓論> 1895)

라고 前提하고 곧 이어서 <原道>를 著述하여 君臣・父子의 倫理를 強調한 唐의 韓愈를 그와 같은 專制君主를 尊重하는 者라고 하였다. 즉

그와 같이 強硬하고 잘 속이는 君主를 존중하여 君主는 安坐하여 마음대로 指示하여 天下의 無數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勞力과 마음을 다하여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게 하며, 조금이라도 그의 뜻과 다르면 곧 죽어버리니 하늘의 뜻(天意)이란 진실로 이런 것인가(同上)

라고 하였다. <原道>는 傳統的 君臣觀에서 매우 尊重되어 온 文章인데 嚴復의 批判은 극히 辛辣하였다. 또 嚴復 등이 1897년에 天津에서 創刊한 國聞報의 記事에는

秦이 政權을 잡은 때부터 백성을 愚弄하여 天下를 사사로이 하고 나라를 보기를 君主의 사사로운 事業으로 생각하였다. 한나라의 政치는 다 君主에게서 나와서

君主 以下の 모든 사람은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君主은 홀로 위에 서서 數萬里의 領域에 사는 數百萬의 사람의 生命과 그 存亡과 治亂은 다 한 사람의 손에 달려게 되었다(書報國會題名後 1897年)

라고 하였다. 戊戌變法의 主導者인 康有爲의 弟子인 劉楨麟은

中國 二千年의 政治는 다 支配者 한 家門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經世文新編 卷1, 1897年)

라고 하고 또

백성을 우롱하는 생각은 모든 君主가 즐기는 바로서……백성을 죽이려고 하면 반드시 이를 우롱하니, 우롱한다는 것은 곧 죽이는 것이다(同上 卷18)

라고 하여 專制君主는 愚民政策을 쓰고 이것은 곧 백성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上海의 商務印書館이 1904年에 月刊誌로 創刊(후에는 半月刊)하여 1948年까지 계속된 〈東方雜誌〉의 創刊年의 한 社論에서

中國은 본래 專制政體로 世界에 알려져 있으며, 그 流弊가 極度에 이르러서, 온 나라에 한 사람의 有權者도 없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專制政治가 오로지 모든 사람의 權利를 빼앗아서 한 사람의 權利만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同誌 1904年 第5期)

고 하여 專制政治를 痛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論調는 中外日報(汪康年 이 梁啓超와 같이 創刊한 時務報의 改稱)의 1904年의 社論(5月 5日字)에도 보인다.

以上에 든 몇가지 例文을 綜合하여 보건대 專制主義에 대한 批判에는 民主的 政治를 志向하는 傾向이 있음을 否定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批判은 專制主義 自體를 非難할 뿐이며 民主主義思想에 根據하여 어떤 體系的인 論理的 展開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단순한 專制主義批判은 西歐思想의 導入 이전에도 자주 있었다. 例를 들면 淸初의 黃宗羲는

後世의 君主는……天下의 利害의 權限은 다 자기의 手中에 있으며……天下의 害

는 모두 남에게 물리고……君主가 主人이고 天下가 客이 되고……天下의 사람들의 骨體를 두들겨 쪼개고 天下의 아들딸을 離散시켜서 자기 한 사람의 淫樂에 바치고……(明夷待訪錄 原君)

라고 하였으며 孟子도

백성이 가장 貴하고 社稷 즉 國家가 다음이며 君主는 가벼운 것이다(盡心下)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民本主義의 見地에서 民을 重視하고 君을 輕視하여야 한다는 見解는 반드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專制主義를 批判한 人物들 中에는 康有爲・梁啓超와 같은 變法論者들에 同調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고, 한편 專制主義를 辛棘하게 批判한 사람도 후에 保守・反動化하였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III

다음으로, 앞에서 民主主義의 理念으로서 自由・平等에 言及하였는데, 이제 清末 知識人の 이에 관한 見解를 살펴보겠다. 嚴復은 J.S. Mill의 自由論(〈群己權界論〉) 번역의 凡例에서 自由 대신 「自繇(자요)」라는 말을 쓰면서

中國에서 말하는 自繇는 보통 大吉壯語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등의 좋지 않은 뜻이 있다(1903).

고 前提하고 西洋에 있어서의 自由의 뜻을 說明하고 있는데, 그는 그 보다 앞에서 「自由」(〈嚴幾道文鈔〉 卷 1, 1895年)라고 表現하기도 하였다. 이 〈文鈔〉에서 自由라는 文字를 쓰면서 후에 自由論 번역의 凡例에서 自繇라는 새로운 말을 쓸 理由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自由」에 관한 文章은 1895年(光緒 21年)의 著述이기는 하나 그 文鈔가 發刊된 것이 1922년이기 때문에 그 發刊時에 自由라고 改書한 것이 아닌가 하는 推測을 하나 斷言할 수는 없다.

嚴復이 自由論의 번역 作業을 한 것이 1898年에서 1900年 사이라고 하는데, 1898年에 이미 自由라는 말을 쓴 사람이 있다——그 以前에도 一般的인 뜻으로 自由라는 말이 있었으나 그것은 論外로 한다. ——즉 譚嗣同은 그의 〈仁學〉에서

莊子が「聞在宥天下 不聞治天下」(좋은 統治는 天下를 있는 그대로 放任하는 것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天下를 人爲의으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莊子 在宥編 冒頭)라고 말하였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나라(國)가 있다는 뜻이고, 在宥라는 것은 나라가 없다(無國)는 뜻이다. 在宥라는 것은 自由의 轉音이다. 그 뜻을 말하면, 사람마다 自由로울 수 있다면 반드시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없으면 境界가 없어지며 戰爭이 끝나며, 猜忌가 없어지고 權謀를 버리게 되고 나와 남의 區別이 사라지고 平等이 나타난다. 또한 비록 天下가 있다고 하여도 天下가 없는 것과도 같다.

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自由와 平等을 舉論하고 있는데, 다만 그의 自由는 莊子의 말을 빌어서 自由自在의 放任을 뜻하고 또한 無國은 康有爲의 大同思想을 聯想케 하는 것이다. 平等에 관하여도 많은 사람이 言及하였는데, 특히 指摘할 것은 平等思想이 中國의 思想에 起源을 두고 있다고 主張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嚴復은

(前略) 이들은 다 民主平等의 근본이 되는 말로서 孔子는 이말들을 다 외우고 있었다(譯書〈法意〉)

고 하여 儒家를 말하였고, 南學會(陳寶箴·黃遵憲 등이 1897年에 創立하였고, 譚嗣同·唐才常 등이 會員)의 中心人物의 한사람이었던 皮嘉祐는

平等의 說은 起源이 墨子에 있고, 佛家에서 그 뜻이 밝혀졌고 泰西에서 立法되었다(湘報類纂 所收 平等說)

고 말하였다.

自由·平等이라는 말과 더불어 民主·自主 등의 語句도 자주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專制主義에 대한 批判이 激烈하여지고, 民主主義思想의 根本인 自由·平等이 強調됨에 따라서 國家나 君主 또는 政權·政

治制度에 대한 從來의 觀念에 대하여 反省 批判을 하고 새로운 解釋을 試圖하려고도 하였다. 이러한 民主主義의 思想的 또는 理念的 傾向이 實踐의인 民主主義 運動으로 表面化될 때에 대체로 두가지 方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가지 方向이란 곧 緩慢한 變化와 急激한 改革을 주장하는 것이다.

前者의 가장 甚한 例가 嚴復이다. 그는 많은 重要的 翻譯사업을 통하여 民主主義思想과 接觸하고 이들 번역서들이 中國人에 미친 影響도 크며, 또 직접 自由와 平等을 고취하는 文篇들을 썼으나, 民主主義 運動의 實踐에 대하여는 매우 消極的이었다. 그는 戊戌改革의 中心人物인 康有爲와 그의 同調者들과 親交가 있었으나 中國人의 民度が 낮다는 理由로 改革은 時機尙早라고 하고 國民의 教育이 急先務라고 主張하였던 것이다. 한편 急激한 改革을 主張하는데도 두 갈래가 있었다. 하나는 戊戌改革의 主張者들과 같이 政體 보다도 制度의 改革을 주장하는 人物들이어서 이른바 保皇派의 系列에 屬하며 (戊戌改革의 主動者 중에도 譚嗣同과 같이 急進의인 人物도 있다). 또 하나는 政體의 變革 즉 革命을 主張하는 系列이다.

革命論議와 革命運動에 관하여는 本稿에서는 몇가지 點을 指摘하는데 그치려고 한다. 첫째로 初期(1890年代)의 革命論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專制主義에 대한 批判의 경우와도 같이 또는 그 延長으로서 從來의 民本主義의 立場에서의 論議로서 그것은 當然히 中國의 傳統的 革命觀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것이 하나의 主流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戊戌改革의 失敗 후에는 그 改革의 主動者나 同調, 同情者들은 오히려 後退하여 保守化하는 경향이 많았음에 對하여 일반적으로 革命에 대한 論議는 더욱 熾烈하여졌다. 海外 특히 日本을 중심으로 中國의 亡命者·留學生들이 民主主義 革命을 主張하고 있었음은 周知의 일이다. 다만 그들의 革命論중에는 章炳麟의 一派와 같이 異民族의 支配에서 離脫하는 것을 最上の 目標로 하는 이른바 種族革命을 主張하는 系列이 있어서 海外의 亡命勢力도 民主革命과 種族革命 그리고 保皇派의 여러 갈래로 分散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두려고 한다.

위에서 清末 知識인들이 民主・自主에 자주 言及하였다고 하였는데 民主・自主・民權 등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겠다. 嚴復은

自由를 말한다면 平等을 分明히 하지 않을 수 없다. 平等이 된 후에 自主權이 있으며, 自主權이 合하여서 한 무리(一群——社會의 뜻?)의 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民主라고 한다(嚴幾道六鈔 卷 3, 1900)

고 하여 自主와 民主는 自由와 平等의 延長이라고 理解하였다. 何啓(英國에 留學한 革命派)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나라를 다스리는데는 다만 君主民主 나아가서 君民共主가 있었을 뿐이다……따라서 民主는 즉 君主며 君主 또한 民主다(新政眞詮——胡禮壇과 共著)

라고 하여 民主를 民本主義의 觀點에서 說明하고 있다. 그는 또

自主는 반드시 民衆을 主로(衆主)할 것을 本務로 하여야 한다……이것은 곧 孔子가 말하는 殺身成仁이며 孟子的 捨生取義다(同上).

라고 하여 孔子와 孟子的 말을 빌어서 民本主義를 설명하고 있다.

IV

이제 民主主義의 政治的 制度 또는 機構에 대한 清末 知識인의 見解를 살펴보겠다. 議會의 設置에 대하여 이미 1890年代 初期에 具體적인 意見이 提示되고 있다. 陳虬(山東巡撫의 幕友)는

周禮에 따라서 官衙를 改設하되 다만 首都에는 따로 都察院衙門을 두어 三公이 主宰하고 議員 三十六名을 두되 六部에서 각기 6名을 選拔하여……나라의 大事를 議定 施行케 한다(經世博議)

고 하였는데 議會(議院)라는 말은 없으나 議員이라고 하였고, 또 現官吏

를 議員으로 선발한다고 하였다. 湯壽潛(進士)도 이와 비슷한 意見인데 「上議院」·「下議院」을 提案하고 있다(危言—1890). 그러나 후에는 議院이라는 名稱이 通用되고 議員의 資格에 관하여도 「紳士兵商庶民」·「明經術達治理·同知中外情形者」·「人品學兼優·才識出衆」·「務本節用之大經 安上全下之大法」등 見解가 提示되고 있다.

議員의 人員·任期 나아가서는 投票의 方法에 관하여도 具體的 意見을 提示하고 있다. 投票에 관하여 嚴復은 「英語로 福脫(vote)라고 하는데 적당한 譯語가 없어서 暫定的으로 占字라고 한다」(社會通詮)고 하였다. 選舉權에 대하여 何啓는 前言한 陳虬 등의 見解를 論駁하고 「民學」를 主張하고 있다(新政眞詮 序文).

議會와 政府의 關係에 대하여 그 相互牽制(否決權과 解散權)를 論하고, 또 議會와 君權과의 關係에도 言及하고 있다(汪穡鄉——康年——先生傳記, 經世文統編 등). 議會와 關聯하여 政黨政治에 관하여도 舉論하고 있는데, 다만 政黨의 例로서 「君主之黨·民主之黨·君民共主之黨」등을 들고 있는 것은 如前히 君主制에 대한 意識이 크게 潛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地方自治制·地方議會에 대한 意見도 상당히 활발하게 開陳되었다. 여기에서 한가지 附言할 것은 淸日戰爭후에 中國의 地方 各地에 많은 學會가 設立되었는데, 대체로 그들의 趣旨에는 地方의 民度を 높이고 人材를 養成하여 地方議會의 議員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進加되어 있었다(梁啓超, 飲氷室文集 卷 3).

앞에 든 問題들은 1890年 前後로부터 中國의 知識人들이 關心의 對象으로 한 것인데, 이와 같은 關心이나 主張이 具體化되기 위하여서는 民主主義 憲法을 制定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 立憲問題는 露日戰爭 전후의 國際情勢의 영향으로 비로소 활발하게 論議되기 시작하여 三權分立·責任內閣 등의 문제가 提起되었다. 民間의 立憲 要望에 대하여 保守的인 淸政府는 姑息的으로 立憲準備를 한다는 口實로 遲延策을 쓸 수 밖에 없었다.

V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清末의 知識人들은 民主主義의 基本理念과 政治上의 民主主義에 대하여 상당히 깊은 理解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이 言論이나 學會를 通하여 그 理念을 國民에게 鼓吹하려고 하고 또는 實踐에 옮기려고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清末의 모든 知識人이 이에 同調한 것은 물론 아니다. 西津의 思想이나 學術 내지는 技術이라도 하여도 全面的으로 拒否한 知識人이 많았다는 것은 洋務運動期에도 잘 나타난 일인데, 더욱 2千年來의 中國의 政治制度를 改革하려고 하는 民主主義理念에 대하여는 이에 反對하는 立場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그 가장 顯著한 例를 몇가지 들겠다.

張之洞(1837~1900)은 洋務運動에 있어서 曾國藩·李鴻章에 이어서 그 운동의 中心人物로서 中體西用을 主張하였음은 周知의 일이며, 戊戌改革에 대하여도 同調하는 듯 하였다. 그가 〈勸學篇〉을 出版한 것은 바로 改革의 進行中이어서 改革派는 이 冊이 改革의 推進에 有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改革에 同調하는 光緒帝는 이 책을 모든 官吏·學生에게 配布할 것을 指示하였었다. 그러나 그 冊의 內容은 그렇지 않았다. 改革이 아니고 教育에 의한 漸進的 改良을 志向하여 改革에 반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改革이 政變으로 失敗하자 張은 保守派인 西太后에게 改革派의 處罰을 進言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戊戌改革이 있던 1898년에 出版된 〈翼教叢編〉은 朱一新·張之洞·王先謙 葉德輝 등 이른바 護教派의 反改革論集으로서 近 50篇의 論文·書簡이 收錄되어 있는데, 그 序文에 「康·梁等造逆之謀亂政之罪」라고 表現하였으며 內容의 文篇도 같은 論調다. 또 戊戌改革이 실패한 후 1901에 編纂된 (出版은 1905) 〈覺迷要錄〉(葉德輝編)이라는 책이 있다. 冊名도 雍正帝의 大義覺迷錄을 본뜬 것이며, 그 叙文의 처음에 「康梁逆黨藏身海外云云」이

라 하고 政變後의 文書 30 여 件을 모아서 康梁을 非難하고 있다. 이들은 清末 知識人の 反民主主義의 言論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다.

中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의 實現이 阻害된 社會的 政治的 그리고 經濟的 諸原因에 대하여 考察한다는 것은 本稿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되나, 清末 知識人の 理解라는 점에서 몇가지를 指摘하고 또 問題로서 提起하려고 한다. 첫째로 그들은 民主主義思想의 要點에 대하여는 대체로 充分한 理解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는 反民主主義의 知識人들이 또한 많았다는 점이다. 셋째로 筆者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民主主義를 民本主義 내지는 中國固有의 思想과의 연관에서 說明한다는 문제다. 다른 分野, 말하자면 宗教에서는 土着化(佛敎의 中國化)는 可能하다고도 생각되나 民主主義思想에 있어서 그것이 可能한가, 理論的 面에 있어서는 不可能하다고 하면 啓蒙的·教育的 見地에서는 許容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다.

끝으로 清末 知識人の 民主主義思想의 理解에는 孫文의 三民主義의 形成過程 또는 革命派 知識人들의 革命運動의 推進中에 있어서의 言論 등도 言及됨이 마땅하나 이 점들은 割愛하였음을 밝혀둔다.

〈主要한 參考資料〉

包遵彭等編, 中國近代史論集, 第1輯 第5冊——自強運動(臺北, 1956)

同上書, 第1輯 第7冊——維新與保守(臺北, 1956)

王爾敏, 晚清政治思想史論(臺北, 1969)

B. Schwartz,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 Yen Fu and the West* (N.Y., 1969)

A.W. Hummel, ed., *Eminent Chinese of Ch'ing Period*, 2vols, (Washington, 1943·44)

H.L. Boorman et aleds, *Biographical Dictionary of Republican China*, 4 vols. (N. Y. and London, 1967~71)